

제 16 차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포 스테 ■

1

비인강전이를 동반한 재발 갑상선 유두상암

이태일* · 윤정한 · 제갈영중

조재식** · 임상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배 경 : 갑상선 유두상암의 재발은 주변림프절 및 갑상선상등의 국소재발과 골, 폐, 간 등의원격 재발로 분류되며 초회 치료시 환자의 연령, 조직학적 분화도, 암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빈도에서 이루어지지만, 비인강내로의 전이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방 법 : 조직학적으로 검증된 비인강내 전이 갑상선 유두상암 환자 1례에 대하여 병력지 검토와 함께 문헌고찰을 하였다.

결 과 : 75세의 여자환자가 최근 1년간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비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5년 전에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정기적인 검진은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 초진당시 육안검사상 posterior chona를 거의 점유하고 있는 출혈성 종물을 확인하였고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 비인강의 posterolateral wall에 4.5×2cm의 종괴가 후방으로 내·외 경동맥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경부에 다발성 림프절 비대도 관찰되었고 흉부 방사선 촬영상 폐전이도의 심되었으나 골주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림프절과 비인강내 종물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상 모두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판명되었다. 환자는 이후 방사선치료를 시술 받고 화학요법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고 현재thyroxine투여와 함께 추적 관찰중에 있다.

결 론 : 갑상선암의 비인강내로의 전이기전에 대한 고려와 함께 향후 임상적 경과 및 적절한 치료형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2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과 동반된 갑상선내 부갑상선암 1예

장항석* · 정응운 · 김호근** · 박정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부갑상선암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서 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도 2~3% 미만에서 발견되지만, 신부전증 환자에서 발생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전세계적으로 단지 13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본 저자들이 경험한 본 증례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4개의 부갑상선의 증식성 병변과 갑상선내 종괴로 나타난 부갑상선암이 공존하고 있어 더욱 희귀한 경우로서 현재까지의 문헌고찰상 이 같은 증례의 보고는 없었다.

환자는 43세 남자로 16년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았으며, 심한 골동통, 근무력과 고칼슘혈증, 고인산혈증, alkaline phosphatase의 증가, 혈청 PTH 증가, 골밀도 검사상 심한 골흡수 소견을 보였다. 경부 초음파 검사상, 좌측 갑상선내에 약 직경 3.5cm 크기의 저음영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99mTc-sestamibi scan에서 좌측 전경부에 동위원소 투여 4시간까지도 hot uptake 상되로 유지되는 병변을 보였다. 수술은 4개의 부갑상선을 모두 확인한 후 전절제하였으며, 자가이식하였고, 전상중격동 절제와 좌측 갑상선엽 절제를 시행하였다. 병리검사상 4개의 부갑상선은 증식성 병변으로 판명되었으며, 절제된 갑상선에서는 일부 갑상선 조직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혈관침윤 및 주위조직 침윤소견을 보이는 부갑상선암의 소견을 보였으며,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부갑상선 조직임을 확인하였다. 환자는 증상 및 고칼슘혈증이 호전되었으며, 수술후 3개월제인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경과관찰중이다.